

# 지식의 유대와 시련 : 공동체 및 바다인으로 살기

나루몬 아루노타이

태국 출라롱콘대학 사회연구소

# 1-1

## 서론

전통적인 해안 공동체는 해양지식을 이용해 조간대 해안, 맹그로브, 갯벌, 해안림, 산호초 등 다양한 생태학적 지위를 점하는 자원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태국어로 ‘바다인’을 의미하는 차오라이(Chao Lay), 즉 태국의 바다 유목민들은 섬과 해안지역에 일시적인 거주지를 만들어 살아왔던 토착민들이다. 태국 남부 지역에서 총 43개의 촌락을 이루고 있는 모켄족(Moken), 모클렌족(Moklen), 우락라워이족(Urak Rawoi)은 수 세기 동안 바다와 숲을 현명하게 활용했던 해양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차오라이는 “물을 보고 바람을 알고, 하늘을 보고 별을 기억하는” 위대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uain 2008). 지금도 일부 공동체에서는 해양지식과 기술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태국 남부 푸켓 주의 라와이 해안 공동체이다. 차오라이의 두 부족인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했는데, 해안 근처의 얇은 물과 인근의 산호초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이 양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만(灣)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역은 거주지로서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의 풍부한 자원 덕분에 수렵과 어업에도 매우 적합했다. 거주지 선택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하며, 섬과 해안에 있는 차오라이 마을 대부분은 바람과 태풍으로부터 보호받는 만이나 해안에 위치해 있다. 담수는 주변에서 샘, 냇물, 연못의 형태로 쉽게 발견된다.

## 해양생활의 핵심: 선박과 선박 건조

우락라워이족의 프라후(Prahu)와 모켄족의 카방(Kabang)은 해양 반유목민 생활의 핵심을 보여주는 전통 선박이다. 과거에 이들은 이동수단이자 수상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모켄족의 카방은 2018년 태국 문화부 문화홍보과에 의해 태국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인간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독특한 선박 덕분에 모켄족과 우락라워이족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에 접근하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다. 프라후와 카방은 모두 긴 판다누스잎을 등나무뿔줄로 묶어 만든 삼각형의 돛이 달려있고, 긴 노를 사용했다.

전통적인 프라후와 카방은 어떠한 합성 부품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오염방지 도료도 필요하지 않다. 유지보수는 간단해서 보트 주인 스스로 할 수 있다. 마감재는 나무껍질을 망치로 잘게 부숴 만든데, 마감재로 틈을 메우고 나면 딥테로카르푸스(Dipterocarp) 나무의 진액을 발

라 봉한다. 그렇게 작업한 보트는 보수를 할 때마다 가벼워져 부력이 더욱 좋아지며 보트 주인은 잘 관리된 보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모켄족의 카방이 진화해온 모습은 기술의 변화, 카방의 건조와 유지보수, 선상생활과 이동, 그 이면의 무형문화유산과 상징의 변화를 반영한다(Ivanoff 2000). 모켄족의 카방은 통나무 속을 파내 만든 배 위에 고정된 등나무뿔줄로 살라카줄기(*Zalacca wallichiana*)를 묶어 뱃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이 줄기들은 길고 가벼워 배 안에 물이 차도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래서 카방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였다. 카방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물을 재빨리 퍼내고 나면 카방은 다시 뜰 수 있다. 카방에서 생활하는 모켄족은 이러한 선박의 특성과 바다 및 주변 섬에 대한 조예가 깊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느낌을 받는다. 해양 이동이 어려운 우기나 폭풍우 시기에는 카방을 해안으로 끌어올린다. 살라카 나무는 마르면 더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눈에는 모든 카방이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모켄족은 각각의 카방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구분할 수 있고 멀리서도 누구의 카방인지 알아본다(Hinshiranan 2001).

‘2세대’ 카방은 살라카 대신 나무판자를 덧댄 통나무배이다. 나무판자를 덧댄 카방은 돛을 달기엔 너무 무거워서 돛과 노 대신 디젤 모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3세대’ 카방은 나무판자만으로 만들어졌다. 나무판자는 통나무배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졌지만 판자가 상했을 때 한 장씩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모켄족이 이 기술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였을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급자족했고 금전적 비용이 들어가는 외부 기술과 도움에 의존하지 않았다. 게다가 잦은 항해와 이동은 더 넓은 지역의 천연자원을 사용하면서 환경을 훼손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모켄족의 삶과 선상생활은 좀 더 지속가능했고, 기록에 의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 팡웅가 주의 수린섬에 사는 모켄족은 여전히 메르귀 제도에 사는 친구와 친척들을 방문해 집단 간 강한 결속을 유지했다.

불행히도 태국 내 대부분의 우락라위이족에서 전통선박 제조기술이 사라졌다. 수린섬 공동체에서 소수의 나이든 모켄 남성들이 숲에서 보트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를 고르는 법과 카방을 만드는 법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큰 나무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보호림, 또는 개인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이 해양 유목민들의 선박제조기술과 지식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와이 공동체의 경우, 오늘날 우락라위이족과 모켄족이

가진 차오라이의 무형문화유산은 사라졌다. 여전히 수렵채집과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종하기 어렵고 유지비용이 비싼 모터 달린 선박인 화통(Hua-thong)을 사용해야 한다.

화통보트가 도입되고 모터 사용으로 인한 디젤 연료 비용이 발생하면서 차오라이의 집단 간 방문과 교류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좌식생활이 늘고 이동이 뜸해지면서 사고 모임도 줄어들었고, 공동체 의식 또한 여러 섬의 통합적인 문화적 정체성에서 특정 섬의 정체성으로 축소되었다.

비록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이 화통보트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전통 방식의 선박 제작에 대한 생생한 기억으로 손쉽게 실제 선박을 축소한 모형 선박을 만들 수 있다. 푸켓 주 시레 공동체의 우락라워이족과 팡응가 주 수린섬의 모켄족은 이 지식을 활용해 아름다운 프라후와 카방 전통선박 모형을 제작한다(Arunotai 2008). 그러나 이 선박들은 차오라이 공동체 내에서만 판매되므로 여전히 판매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 해양 수렵-채집 지식

라와이의 두 차오라이 부족들은 모두 바다와 해안에서 식량을 찾는 데 능숙한 수렵-채집인들이었다. 해안에는 대합과 같은 조개류가 있어서 아이들과 노인들은 손가락을 이용해 땅을 파거나 모래를 훑으며 조개를 찾는 것을 돕는다. 썰물이 되면 차오라이는 더 깊이 들어가 게나 굴, 작은 문어를 찾는다. 모래 속에 풍부한 작은 조개류, 석화, 작은 게, 해삼은 바다에 나가는 것이 어렵거나 위험한 폭풍우의 시기를 대비한 비축자원이다. 여성과 노인, 아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식량자원들을 찾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가장 가난한 가족들과 가장 어려운 시기를 위한 식량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동시에 해양지식과 기술은 차오라이의 사회적 유대와 집단적의식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해양지식과 기술은 차오라이 언어의 지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라와이 지역과 푸켓 섬 주변에서도 차오라이 지명들이 많다. 이 지명들은 차오라이의 육지와 바다 풍경에 대한 집단적 기억의 표현이자 그 지역을 반영하는 오랜 역사와 끈끈한 유대를 재확인한다. 집단적 기억은 전통신앙과 함께 차오라이가 특정 지역을 보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라와이에는 담수를 제공하는 수로가 있고 차오라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 동안 이곳에 보트를 묶어 둔다. 몇몇 차오라이 노인들은 어린 시절 수로에서 목욕을

하고, 사람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 돌에 내려치거나 세면대를 만들기 위해 모래를 파던 것을 기억했다. 수로의 안쪽을 따라 이어진 모래언덕은 죽은 아기를 묻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차오라이는 장소에 영혼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장소를 평화롭고 깨끗하게 지키고 존중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Arunotai 2019).

차오라이인 우락라워이족과 모켄족은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감정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이 매우 강하다. 이들은 멀리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외부인과 결혼한 사람도 보통 배우자를 데려와 공동체 내에서 산다.

## 관광 개발과 해양무형문 화유산의 영향

수산자원 및 여타 해양자원이 줄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해양보호 지역에서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차오라이는 점차 생계수단과 전통적인 지식을 잃어가고 있다.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콘크리트 형태의 호텔과 리조트, 식당과 상업지구, 그리고 최근에는 술집 등이 라와이 공동체를 둘러싸게 되었고, 그 결과 관광 인프라와 활동이 이곳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라와이 공동체에서 차오라이는 작은 생선 가판대를 세워 남는 어획량을 팔아 돈을 마련하곤 했지만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해산물 가판대와 선물가게, 식당이 라와이 마을의 입구에 줄지어 세워졌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바닷가와 ‘바다인’ 마을의 명성을 이용해 부를 쌓으려는 외부인들의 소유이다.

어업과 채집을 하는 차오라이가 줄어들고 있다. 해양자원이 줄어들고 여러 해양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어업과 채집 장소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도 더 먼 바다로 나가 더 오랜 시간 머무르며 위험한 방법으로 고기잡이를 한다. 차오라이의 신성한 공간과 숭배의 장소는 상업적인 땅으로 변했다(Arunotai 2017).

오늘날의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와이 공동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봉쇄에 가까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눔과 베품의 원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카렌족 산악 원주민 공동체와 차오라이 공동체는 ‘생선과 쌀의 교환’으로 공동체의 식량을 확보했으며, 이는 코로

나의 준 봉쇄 상황이 식량 분배와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동안, 흔히 등한 시하는 지식과 기술이 편의점이나 현대식 상점에서 구매할 식량에 의존하는 도시인들에게 어떻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자면, 차오라이의 지식과 기술은 지금 빠져나가는 썰물과 같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회복과 재생, 더불어 시장경제와 보존 정책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된다면 되살아나는 활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